

## 충북지역 벼 이모작 재배 시 품종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 비교

최예슬<sup>1\*</sup>, 이채영<sup>1</sup>, 이희두<sup>1</sup>, 홍성택<sup>1</sup>, 김영호<sup>1</sup>, 박재성<sup>1</sup>, 김정곤<sup>1</sup>

<sup>1</sup>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, 충청북도농업기술원

### [서론]

지구온난화에 따라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.2℃ 정도 상승하였으며, 이러한 기후변화로 작물들의 재배지역 북상과 다양한 작부체계 발달로 이모작 재배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 충북지역은 3만 5천ha의 논에 다양한 벼 재배 양식과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으며 수박, 호박 등 시설재배면적이 3천 8백여 ha로 앞으로 이모작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이앙시기에 따른 벼 품종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비교하여 이모작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6~2017년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답작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시험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, 한설, 조생종인 오대, 운광, 화왕 등 5 품종을 공시하였다. 이앙시기는 6월 2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7월 20일까지 총 4회 이앙하였다. 재식 거리는 30x15cm의 간격으로 손이앙 하였으며, 시비량은 10a당 N:P:K=7:3:4.2kg으로 질소는 기비 70%, 수비 30%로 2회 분시, 인산은 전량 기비하였다. 벼 생육특성,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에 따랐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출수기는 충북지역의 안전출수한계기를 8월 23일로 볼 때, 오대, 화왕은 6월 20일, 운광, 한설은 6월 30일, 백일미는 7월 10일 이앙 시 8월 23일 이전에 출수되었다. 간장은 모든 품종이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영양생장기간이 짧아져 줄어드는 경향이었으나, 주당수수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였다. 등숙비율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였으며, 운광, 오대, 화왕은 7월 20일 이앙에서는 70% 미만으로 현저히 낮았다. 완전미 비율은 극조생종은 이앙시기별로 비슷하였으나 조생종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였다. 10a 당 쌀수량은 오대 331~465kg, 운광 364~579kg, 백일미 318~387kg, 한설 321~458kg, 화왕 276~441kg 이었으며, 6월 20일 이앙기 기준으로 오대가 2~29%, 운광이 6~37%, 백일미가 10~18%, 한설이 12~30% 그리고 화왕이 14~27% 감소되었다. 이상으로 보아 오대벼, 운광벼는 6월 30일, 한설벼는 6월 20일까지 이앙 시 등숙기 저온피해가 적고 쌀수량은 450kg/10a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.

### [사서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06503072018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\*주저자: Tel. 043-220-5553, E-mail. yeppi1114@korea.kr